

충남마을기행 . . 일곱 빛깔로 어우러진 태안 갈두천마을

## 일곱 빛깔로 어우러진 태안 갈두천마을

정 봉 희

충남연구원  
홍보팀장

쫄의 머리와 같이 강한 생명력으로  
마을의 안녕과 평온을 간직한 마을.  
철마산 중턱의 발원지에서 시작되어  
태안 원북면 장대1·2리, 양산1·2리,  
대기1·2리, 청산2리 등 7개 마을을  
굽이굽이 어루만지고 있는 갈두천.  
바다와 만나는 곳에 자리잡은  
선돌바위로 이어지는 물길따라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갈두천마을권역(이하 '갈두천마을')이다.



01 갈두천마을에 걸린 권역 안내도  
02 갈두천마을 박원철 위원장

충남 태안에 자리잡은 갈두천마을은 지난 2008년부터 잠곡프로젝트를 기점으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각자 따로 놀던 7개 마을을 하나로 묶어 권역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일곱 빛깔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

2016년도에 농림부 주관 ICT창조마을로 선정되어 마을 각 체험장과 주요 명소에 CCTV와 비콘(위치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신호 전달 기기)을 설치했다고 한다. 언급했다시피 갈두천권역은 7개 행정리의 각종 관광자원이 흩어져 있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콘을 활용한 마을관광 안내 시스템 및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서비스 도입 전 대비 방문객 수가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다양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위기도 한층 바뀌었다고.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도농교류가 활

발해지고, 노인이 대부분인 마을에 귀농·귀촌이 늘어나면서 마을의 활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필자가 가장 눈여겨봤던 이 마을의 ‘농어촌 인성학교’는 청소년 인성함양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지원 교육사업으로 현재까지 태안에서는 갈두천 마을 한 곳만 지정받아 운영(충남에 13곳 지정)되고 있다.

필자가 마을을 직접 찾아가 만난 박원철 마을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환하게 웃으며 즐거워했다. 한 마디로 하는 일이 재미있다고 말한다. 정작 본인을 귀농 1세대로 칭한 박 위원장은 21년째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다.

제일 먼저 들렀던 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여기가 농촌마을건물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회의장, 단체교육장 및 숙박, 식사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었다. 박 위원장은 “물론 방문객들이 찾아오면 편하게 지내다 갈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고 취미생활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맘에 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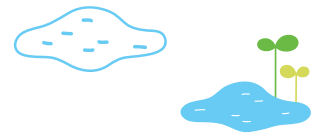




충남마을기행 . . 일곱 빛깔로 어우러진 태안 갈두천마을



03 갈두천권역 커뮤니티센터와 주변 광경



센터 2층으로 올라가보니 회의장인데 무대도 있고 낮익은 악기들이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닌가. 박 위원장은 “이 마을의 자랑중의 하나가 바로 마을 주민들이 결성한 어울림밴드”라고 소개했다. 3년 전부터 밴드를 만들어 연습하고 있는데, 현재는 남자 6명, 여자 6명 등 총 12명이 멤버로 활동 중이다. 지역 축제나 행사에 요청이 오면 한달음에 달려가 연주와 노래로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

말이 나온 김에 이 마을의 주요 체험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먼저 활쏘기체험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조선 태종임금이 수렵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장 긴 거리가 150m나 된다고. 산을 깎아서 만들었더니 위에서부터 테굴테굴 굴러 내려오기도 한단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먹는 두부 맛이 일품이란다. 이 마을 중 ‘큰 터’라는 뜻의 대기리는 종자 콩 단지인 만큼 우수한 품질의 콩이 생산되는 곳. 콩이 매우 유명해서 그런지 두부 판매로도 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이 마을은 바닷가와도 인접해있어 다양한 갯벌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갯벌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마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썼다고 한다.

무엇보다 최대 2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방문객은 물론, 농촌봉사활동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편하게 다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체험프로그램은 갈두천마을의 가장 큰 특색 중의 하나인 ‘농어촌 인성학교’ 와도 연계되어 있다. 2015년도부터 본격 운영된 이 사업은 자연과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율학기제 시행에 따라 중2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은 물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당일코스부터 1박, 2박 코스로 구분된다. 한 가지 특색이 있다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진들이 바로 마을 주민이라는 사실이다. 현재 총12명의 주민이 체험지도사 또는 인성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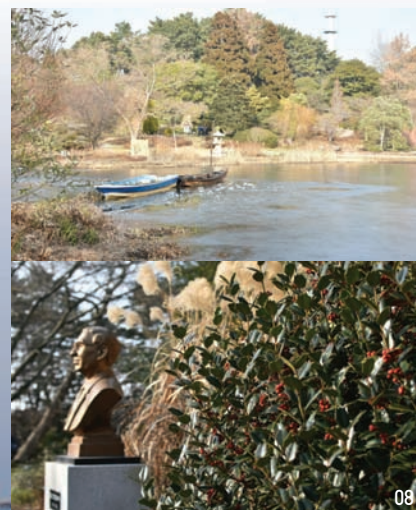
〈주요 체험프로그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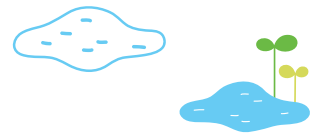
시기	주요 체험 프로그램명	
연 중	생태체험	하천 · 바다생태 관찰(미꾸라지 · 맛 · 게)
연 중		곤충류 · 야생화 관찰(반딧불이 · 들꽃류)
연 중		짚풀공예 체험(이엉엮기 · 새끼줄꼬기)
연 중	문화체험	활쏘기 · 전통놀이
연 중		민속놀이 즐기기(제기차기 · 비석치기)
연 중		염색체험, 서각공예
연 중	음식체험	떡볶이 · 김정콩찰싹케이크 만들기
연 중		마늘탕수육 · 오이피클 만들기
연 중		두부 · 메주 · 청국장 만들기
5월	농사체험	모내기 · 우렁이 놓기 체험
6월		육쪽마늘 · 감자 캐기 체험
7~11월		옥수수 · 과일 따기(블루베리 · 복숭아)
9~11월		벼베기 · 고구마 캐기 체험





- 04 활쏘기 체험 모습과 체험장 설명중인 박 위원장
- 05 자전거 타기 및 갯벌 체험 모습
- 06 군고구마 체험
- 07 갯벌체험장인 청산2리 앞바다에 있는 선돌
- 08 천리포 수목원
- 09 만리포 해수욕장
- (4~7번 사진 - 갈두천마을 제공)





박 위원장은 “지난해 우리 마을에 약5000명의 체험객이 방문했고, 체험과 특산물 판매 등으로 약 1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주로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가장 많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학교 학생들이 다음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점점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며 “그렇다고 이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를 통해 마을의 활력을 찾고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마을로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어쩌면 이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청산 2리의 경우 귀농귀촌자가 전체 마을 주민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니 말이다. 그리고 폐교 위기에 있던 대기초등학교 역시 마을 주민들과 향우회가 힘을 모아 살려내는 등 마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참! 갈두천마을에 방문했다면 주변을 둘러봐도 좋다. 20~30분 근처에 신두리사구과 두웅습지 등을 묶어도 좋다. 이날 필자는 만리포해수욕장과 천리포수목원을 묶어 다녀왔다.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선정한 겨울 농촌 관광코스 9개 중 하나인 “안면도자연휴양림→꽃지해수욕장→불빛축제→몽산포항→갈두천마을”이 인기였다.

태안에 많은 체험마을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갈두천마을은 태안의 또 다른 색깔을 맛볼 수 있는 곳이였다. 갈두천마을에 들러 따뜻하고 향긋한 봄 향기가득 담아오길~~~

